



## 신라 하대의 三寶

Three Treasures in the Later Period of Silla

---

저자 (Authors)	백미선 Baek, Mi-sun
출처 (Source)	<a href="#">신라사학보</a> , (23), 2011.12, 579-617 (39 pages) <a href="#">SILLASAHAKPO</a> , (23), 2011.12, 579-617 (39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신라사학회</a>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25">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2442525</a>
APA Style	백미선 (2011). 신라 하대의 三寶. 신라사학보, (23), 579-617.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1 14:51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신라 하대의 三寶

백 미 선\*

- |                     |                  |
|---------------------|------------------|
| I. 머리말              | IV. 신라 하대 삼보의 의미 |
| II. 삼보의 등장          | V. 맺음말           |
| III. 경명왕의 왕권 강화와 삼보 |                  |

## 【국문초록】

신라는 많은 보물을 가진 나라였다. 이 보물들은 모두 신라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신라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컸다. 이 가운데서도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9층 목탑 그리고 천사옥대는 신라 하대에 三寶라 불리며,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보물이었다.

신라 삼보는 신라 하대 경명왕 4년에 처음 등장한다. 그간에는 신라 삼보가 종교기에 성립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들이 ‘삼보’로서 함께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삼보는 처음 고려 태조 왕건의 친신라정책에 대한 이슈로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삼보에 대해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신라이다. 신라는 경명왕 5년 삼보를 찾고 그것을 통해 대외관

\*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주요 논저 : <사비시대 백제의 대외 불교 교류와 慧聰> 《한국사상사학》 34, 2010 : <《해동고승전》을 통해 본 각훈의 고구려 불교사 인식> 《한국사학사학보》 23, 2011

계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후삼국관계 속에서 효용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라 삼보 각각이 신라 증고기에 성립한 것인 만큼 신라 하대에 어떤 필요로 요구 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삼보 각각과 신라 하대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황룡사 장육존상은 현재 전하는 기록이 없어, 추후 황룡사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상징하는 의미가 유연해 증고기 이후 다양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천사옥대의 경우는 앞의 두 보물과는 좀 다르다. 호국보로서의 모습 보다는 진평왕대의 왕권 강화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신라 하대에 이러한 성격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 경순왕으로부터 천사옥대를 이어받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경순왕이 귀부와 동시에 천사옥대를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후삼국이 통일된 뒤에야 바친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다. 후삼국 통일 이후 고려는 신라를 잇는 통일 왕조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고려 태조는 천사옥대를 비롯한 삼보를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三寶, 신라 경명왕, 고려 태조 왕건, 황룡사 장육존상, 황룡사 9층 목탑, 천사옥대

## I. 머리말

신라는 많은 보물을 가진 나라였다. 이 보물들은 모두 신라의 흥망 성쇠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신라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컸다. 이 가운데서도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9층 목탑 그리고 천사옥대는 신라 하대에 三寶라 불리며,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건국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던 보물이었다. 따라서 삼보에 대한 연구는 신라사에 대한 역사적인 접근을 위해 꼭 필요한 부

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삼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삼보를 구성하는 각각의 보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졌으나,<sup>1)</sup> 삼보 자체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다만 일찍이 삼보가 신라 중고기에 성립하였으며, 그 성격은 호국적일 뿐 아니라 신라 중고기의 정치와 사상을 대표하는 것이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sup>2)</sup> 이때 삼보의 의미는 신라 중고기 이후 줄곧 강조 된 것이 아니라, 신라 중대에 왕실이 교체됨으로써 축소되었다가 신라 하대에 이르러 다시 부각된 것으로 보았다.<sup>3)</sup>

1)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김리나,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신라의 아육왕상계불상> 《진단학보》 46·47, 1979 ; 문명대, <신라 삼보 황룡사 금당 석가장육존상의 복원과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입상의 연구> 《한국불교의 좌표》, 1997 ; 양정석, <황룡사 중금당의 조성과 장육상> 《선사와 고대》 12, 1999 ; <황룡사 구층 목탑의 조성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선사와 고대》 21, 2004 ; 《황룡사의 조영과 왕권》, 서경문화사, 2004 ; 남동신, <신라 중고기 불교치국책과 황룡사> 《황룡사의 종합적 고찰》, 2001 ; 김재경, <신라 불교와 천신신앙> 《논문집》13, 1996 ; 안지원, <신라 진평왕대 제석신앙과 왕권> 《역사교육》63, 1997 ; 이정숙, <진평왕대 왕권강화와 제석신앙> 《신라문화》16, 1999 ; 전창범, <진평왕 천사옥대의 재고찰> 《동악미술사학》 창간호, 2000 ; 채미하, <천사옥대와 흑옥대> 《경희사학》 24, 2006 ; 주경미, <황룡사 9층 목탑의 사리장엄 재고> 《역사교육논문집》 40, 2008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2010.

2) 김상현, <신라 삼보의 성립과 그 의의> 《동국사학》 14, 1980. 신라의 삼보에 대한 연구에서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후에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이 견해에 따라 삼보가 신라 중고기에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3) 김상현, 앞의 논문, 1980, 64~65쪽 ;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32쪽.

신라 중대에 삼보가 아닌 만파식적이 새로운 보물로서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신라 왕실의 교체에 따른 변화로 설명한 것과 연결된다(김상현, <만파식적 설화의 유교적 정치사상>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

하지만 신라 삼보에 대해서는 신라 중고기가 아닌 신라 하대, 그 중에서도 경명왕대(917~924)를 보다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삼보가 직접적으로 사료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가 이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보를 구성하는 각각의 보물들은 이전에 한 번도 함께 언급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보물이 각각 신라 중고기에 등장하는 것을 근거로 ‘삼보’도 이 당시에 성립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삼보에 대한 사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얻은 결론은 아니었다. 그리고 신라 하대 삼보가 왜 다시 부각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삼보에 대한 기록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신라 하대 경명왕대는, 점차 성장하고 있는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신라가 국가적인 위기에 직면하였던 시기였다. 이러한 가운데 신라 왕실이 삼보에 주목하였던 것은 당시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그들의 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신라 하대의 삼보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신라 멸망기로 여겨졌던 이 시기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sup>4)</sup> 그리고 이 과정에서 신라 삼보의 역사적인 성격도 재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삼보에 관한 사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장에서는 삼보가 등장하는 시기적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

지사, 1999, 92쪽). 한편, 삼보 가운데 2개의 보물을 소장한 황룡사의 위상이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보는 견해(채상식, <신라사에 있어서 황룡사의 위상과 그 추이> 《신라문화》 16, 1999, 36쪽) 역시 일정한 관련이 있다.

- 4) 신라 하대의 시기 구분에 있어서 이 시기는 대개 신라멸망기로 규정된다. 왕계에 의한 시기구분에 따라 ‘박씨왕가 성립시기’로서 규정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 시기의 성격을 보는 관점은 동일하다. 신라 하대 시기 구분에 관해서는 김창겸, 《신라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337쪽 참조.

고, 3장에서는 삼보를 구성하는 각각의 보물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삼보’로 규정되었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고려 귀부와 이때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삼보 가운데 하나인 천사옥대를 넘긴 까닭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삼보의 등장

新羅에서 三寶란 세 가지 보물, 곧 황룡사 장육존상, 황룡사 9층 목탑 그리고 천사옥대를 가리킨다. 이들 각각은 신라 중고기에 등장한 이후 매우 중요한 보물로 인식 되었다. 그러다가, 신라 하대에 이르러서는 ‘삼보’로서 함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런데 그간에는 삼보를 불교의 삼보에서 그 개념이 유래한 것으로 보고,<sup>5)</sup> 중고기의 보물이라고 여겼다.<sup>6)</sup> 하지만 신라 하대 이전에 세 가지 보물이 함께 언급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A-1. 정월에 김륜이 왕에게 고하되, “신이 지난해 고려에 사신으로 갔을 때에 고려왕이 물기를, ‘들으니 신라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다고 한다. 이른바 장육존상, 9층탑 및 聖帶가 그것이다. 상과 탑은 지금에도 있는 줄 알지만, 성대도 역시 지금까지 있느냐’고 하매 신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듣고 여러 신하에게, “성대는 어떠한 보물이나.”고 물으니 아는 사람이 없었다.

- 5) 세 가지 보물이 모두 석가모니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라의 삼보는 불교의 삼보 중 법보와 승보가 연유한 불보를 개연하여 성립된 개념으로 보았다(정중환, <신라성골고> 《이흥직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신구문화사, 1969, 47~48쪽).
- 6) 김상현, 앞의 논문, 1980, 53쪽 : 앞의 책, 1999, 55쪽.

그때 황룡사에 나이 90이 넘는 중이 있어 말하되, “내 전에 들으니 寶帶는 진평왕이 띠시던 것으로 대대로 전하여 지금 南庫에 보장되어 있다.”고 하였다.<sup>7)</sup>

2. 처음에 신라의 사신 김륜이 왔을 때 왕이 묻기를, “들으니 신라에 세 가지 큰 보물이 있다는데 장육금상과 9층탑과 聖帝帶라고 하였다. 삼보가 없어지지 않으면 나라도 망하지 않는다 하니 탑과 상은 아직 남아있거니와 성대가 지금도 아직 있느냐.” 하니 김륜이 대답하기를, “신은 일찍이 성대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고 하였다. 왕이 웃으며 말하길, “경은 귀한 신하인데 어찌하여 나라의 큰 보물을 모른단 말인가.”고 하니 김륜이 부끄러이 여기고 돌아와 그의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신하들에게 묻거늘 능히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황룡사에 나이 90세가 넘는 중이 있어 말하기를, “내가 듣자오니 성대는 진평대왕께서 착용하시던 것이었으며 대대로 이를 전하여 南庫에 보관하여 두었다 하옵니다.”라고 하였다.<sup>8)</sup>

사료 A는 신라 삼보가 처음 확인되는 기록으로, 경명왕 4~5년(920~921)에 해당한다.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고려의 태조 왕건은 신라의 삼보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신라 사신이 고려에 왔을 때에는 삼보가 잘 보관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신라 사신은 잘 알지 못했으며, 본국에 돌아와 군신과 논의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양국 관계에서 신라의 삼보가 언급된 것은 처음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라 사신 김륜이 고려에 사신으로 간 것은 경명왕 4년 10월의 일로,<sup>9)</sup> 왕건과 삼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것도

7)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5년.

8)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0년 여름 5월.

9) 10월에 후백제왕 견훤이 보병과 기병 일만을 거느리고 와서 대야성을 쳐서 함락시키고 군사를 진례성에 진군하였다. 왕은 아찬 김륜을 보내어 태조에게 원조를 구하였다. 태조가 장수들에게 명하여 군사를 보내 구원하니 견훤이 이를 듣고 가버렸다(《삼국사기》 권 12, 신라본기12, 경명왕 4

이 시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해 신라는 정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고려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특히 정월의 사신 파견은 신라가 처음으로 고려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sup>10)</sup> 이는 신라가 반란세력의 하나였던 고려를 국가로 인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sup>11)</sup> 이와 같은 시기에 ‘삼보’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하지만 위 사료를 볼 때 과연 이 시기에 ‘삼보’가 처음 등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곧 고려 태조가 신라 사신에게 말을 꺼낼 때, “들으니”라고 하여 누군가로부터 이미 신라에 삼보가 있다고 들었던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과연 고려 태조가 언제, 누구에게서 삼보에 관해 들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알기 어렵다. 당시 고려 태조의 이러한 관심은 그의 후삼국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설명되었으며,<sup>12)</sup> 최근에는 대신라정책과 관련해서 고려 태조가 즉위 직후부터 삼보에 관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하였다.<sup>13)</sup>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것이 사신이었던 김륜은 물론이고 신라의 군신조차 ‘聖帶’를 알지 못했으며, 오직 황룡사의 나이 90이 넘는 승려만이 알고 있었다는 기록이다. 이런 모습은 당시 ‘聖帶’를 비롯한 삼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 주는 것

년).

- 10) 한편, 고려 태조 즉위년 8월 기유의 ‘重幣卑辭’ 기사를 근거로, 기록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신라가 처음 고려에 사신을 보낸 것은 태조 즉위년이었다는 견해(문수진, <왕건의 고려건국과 후삼국통일> 《국사관논총》 35, 1992, 167쪽)도 있는데, 당시 고려의 ‘重幣卑辭’의 대상이 ‘諸道寇賊’이었다는 점에서 따르기 어렵다.
- 11) 신호철, <후삼국시대 호족과 국왕> 《진단학보》 89, 2000, 14쪽 ; 조범환, <고려태조 왕건의 대신라정책> 《고문화》 55, 2000, 114쪽.
- 12) 김상현, 앞의 논문, 1980, 65쪽 ; 앞의 책, 1999, 71쪽.
- 13) 정선용, <고려태조의 대신라 정책 수립과 그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27, 2009, 146~157쪽 ; 《고려태조의 신라정책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10, 25~34쪽.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 가지 보물은 신라 중고기에 각각 성립하여 매우 중시되었었지만, 황룡사 승려의 나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이후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는 잊혀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sup>14)</sup> 그렇다면 신라의 ‘삼보’는 이 시기에 어떤 필요에 의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다시 사료 A의 내용이 언급된 시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신라의 경명왕은 재위 4년(920)에 먼저 고려에 손을 내밀었다. 이러한 모습은 후삼국이 성립한 이후 그 속에서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신라가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경명왕은父인 신덕왕(912~917)때의 계속된 재해와 그의 즉위 초까지 이어진 지배세력의 동요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으며,<sup>15)</sup> 이를 위해서는 대외적으로도 안

14) 이렇게 聖帶를 비롯해 삼보가 잊혀진 것은 신라 중대 이후라고 본다. 신라 중고기와 왕계를 달리한 까닭에 이전과는 다른 보물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런 가운데 잊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다(김상현, 앞의 책, 1999, 83쪽;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32쪽). 이에 더하여 聖帶에 관한 사실이 오직 황룡사에서만 전해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박씨왕가> 《한국민족문화》 31, 2008, 343쪽: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해안, 2011, 262쪽).

15) 신덕왕 재위 기간 중 보이는 많은 재이 기사에 관해서는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상징적인 현상으로 보거나(조범환, <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129, 1991, 10쪽), 또는 실제 자연 재해로 보더라도 신덕왕은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만한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전기웅, 앞의 논문, 2008, 17쪽: 앞의 책, 2011, 246쪽). 경명왕 즉위 이후에는 재위 2년 일길찬 현승의 모반사건을 박씨가 연이어 왕위에 오른 것에 대한 반발로 보아(조범환, 앞의 논문, 1991, 12쪽; 이명식, <신라말 박씨왕대의 전개와 몰락> 《대구사학》 83, 2006, 45쪽; 전기웅, 앞의 논문, 2008, 344쪽: 앞의 책, 2011, 247쪽) 박씨 왕이 재위한 시기의 불안한 정국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한편, 신라는 고려와 후백제가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할 필요도 있었다. 왕건이 즉위한 이후 양국의 관계는 처음에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후백제 견훤의 계속된 사신 파견으로 곧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 같다.<sup>16)</sup> 신라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와 후백제의 우호 관계는 굉장한 불안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sup>17)</sup> 때문에 신라는 이전과 달리 고려와 후백제의 양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었으며, 고려와 우호관계를 맺는 것으로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를 두고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의 삼보를 언급한 시기가 신라가 처음 사신을 보낸 정월이 아니라 10월이었던 것은, 그 이후 고려 내에서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고려가 처음부터 줄곧 신라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8)</sup> 이 보다는 신라가 경명왕 4년 2차례에 걸쳐 사신을 보냈고, 그 가운데 10월에는 군사원조 요청을 한 것이 양국이 우호관계를 맺는 직접적인

- 
- 16) 《고려사》 권2, 세가1, 태조 1년 8월의 기유조 기사를 보면 여러 호족들 가운데 유독 견훤만이 고려와 교빙하려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며칠 뒤 견훤이 고려에 사신을 보내 즉위를 축하하고, 이어 920년 9월에도 사신을 파견하고 있어 고려와 우호관계를 도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견훤이 고려와 우호관계를 형성하려고 한 것은 신라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 한다(신호철,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1993, 119쪽).
- 17) 신라가 후백제를 염두에 두고 고려와 우호관계를 맺고자 하였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신호철, <신라의 멸망과 견훤> 《충북사학》 2, 1989, 31쪽). 한편, 후백제의 위협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음선혁, 《고려태조왕건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5, 109쪽).
- 18) 조범환, 앞의 논문, 2000, 111쪽 ; 정선용, 앞의 논문, 2010, 9쪽.

게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때 신라 삼보에 대한 이야기는 왕건이 대신라정책의 추진을 위해 제시한 이슈였다는 견해가 주목된다. 고려 태조 왕건은 즉위 후 친궁 예세력의 반발을 무마하는 한편, 집권에 대한 명분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신라 왕실의 권위를 필요로 하여 신라와 교섭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삼보’를 명분으로 그간의 반신라정책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9)</sup> 그렇다면 이때의 삼보는 고려 태조 왕건의 필요와 의도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뒤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하필 이 세 가지를 삼보로 언급한 것 역시 그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 신라의 삼보에 대한 언급은 고려 뿐 아니라 신라에게도 많은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신라가 자체적으로 삼보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 화제를 제시한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었지만, 그는 이후 신라와 이에 관한 논의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반면 신라에서는 김률이 사신으로 다녀온 다음 해 정월에 聖帶에 대해 군신이 함께 논의하고 황룡사의 스님에게까지도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신라가 삼보를 갖추려고 보이는 이러한 노력은 마땅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sup>20)</sup>

19) 정선용, 앞의 논문, 2009, 146~157쪽 : 앞의 논문, 2010, 25~34쪽.

그런데 정선용은 《삼국유사》 권2, 기이2, 천사옥대조의 내용이 《삼국사기》보다 앞선다는 것을 근거로 경명왕 4년 이전에 이미 고려 태조 왕건이 삼보에 관심을 보였고, 이런 뜻을 신라에 계속 보인 결과 마침내 신라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양국 간의 교섭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삼국유사》가 편년체 사료가 아닌 점을 염두에 둘 때, 이러한 시기 설정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또한 당시 후삼국 관계에서 신라의 상황을 볼 때, 경명왕 4년 정월의 사신 파견이 양국 관계의 시작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이는 바로 신라가 이 시기에 제시된 ‘삼보’에 관한 화제의 효용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처음 삼보를 언급하였지만 그의 관심이 신라와의 교섭에 있었던 데 반해, 신라는 이를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여 대내적인 안정을 취하는 한편 후삼국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적인 지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sup>21)</sup> 이와 관련하여 신라 내에서 삼보에 관한 논의가 경명왕 4년 신라의 군사 원조 요청을 받고 고려가 견훤의 진례성 공격을 막아낸 이후에 이뤄졌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sup>22)</sup> 고려와의 우호관계를 통해 얻은 성과 역시 신라의 삼보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신라 경명왕 4~5년 ‘삼보’의 등장은 당시 신라를 둘러싼 대외관계가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간에는 이 시기 삼보의 등장을 신라 중고기에 등장한 이후 재부각 된 것으로 보았다.<sup>23)</sup> 이렇게 삼보를 신라 중고기의 산물로 보는 입장에서 삼보가 다시 부각되는 시기로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이 오묘에서 훗철되는 애장왕 2년(801) 이후로 보기도 한다.<sup>24)</sup> 하지

20) 전기웅 역시 경명왕이 이때 聖帶의 존재를 알고 얻기 위해 애썼으며, 이후 신라 왕실에서 보관하게 되었음에 주목하였다(앞의 논문, 2008, 356쪽 : 앞의 책, 2011, 262쪽).

21) 이와 관련하여 신라가 고려 왕건과 우호 관계를 맺어 그 위치를 인정함으로써 도리어 신라왕실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려 하였다는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조범환, 앞의 논문, 1991, 14쪽).

22) 당시 견훤 역시 고려에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상황에서, 왕건의 이러한 선택은 후백제와의 불화를 감수하겠다는 결심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한다(조범환, 앞의 논문, 2000, 114쪽). 그리고 이때 고려의 선택을 계기로 후삼국간의 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신호철, 앞의 책, 1993, 120쪽). 그렇다면 경명왕이 이 다음 해에 ‘삼보’를 찾기자 노력하는 모습은 이러한 상황 전개에 대한 대응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23) 김상현, 앞의 논문, 1980, 65~66쪽 : 앞의 책, 1999, 71쪽.

만 이러한 견해는 시기에 따라 세 가지 보물에 대한 인식에서 차이가 보인다는 점에서<sup>25)</sup>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시기에 聖帶와 황룡사의 장육존상, 9층 목탑이 함께 ‘삼보’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신라 경명왕 4~5년을 둘러싼 상황의 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경명왕은 이러한 가운데 삼보에 관한 이야기를 신라 내외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있다. 이런 모습은 신라 중대 만파식적 설화가 지배계층에 의해 형성되고, 유포·전승되었던 것<sup>26)</sup>과 닮아 있어서 주목된다. 이후 경명왕은 삼보에 관한 이야기를 공론화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聖帶를 찾아 삼보를 갖추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마찬가지로 삼보에 관한 이야기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 Ⅲ. 경명왕의 왕권 강화와 삼보

경명왕은 재위 5년(921) 정월, 삼보에 관한 이야기를 공론화 시키고 곧 이어 삼보 가운데 하나인 ‘聖帶’, 이른바 진평왕이 띠었다는 ‘천사옥대’를 찾기 시작한다. 이는 비록 삼보에 관해 처음 관심을 보이고 언급한 것은 고려 태조 왕건이었지만, 이후부터 삼보는 신라의 필요와 의도에 따라 그 의미가 부여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과연 신라 내에서는 어떤 맥락 속에서 삼보가 등장하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4) 윤선태, <신라중대의 성전사원과 국가의례>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3, 2002, 100쪽 주 60) 참조.

25) 김상현, 앞의 논문, 1980, 64~65쪽 ;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32쪽.

26) 김상현, 앞의 책, 1999, 85쪽.

- B-1. 사천왕사의 흙으로 만든 불상이 쥐고 있던 활시위가 저질로 끊어지고, 벽에 그린 강아지가 소리를 냈는데, 짓는 것과 같았다.<sup>27)</sup>
2. 제 54대 경명왕 때인 정명 4년 무인에 사천왕사 벽화의 개가 울므로 사흘 동안 불경을 강설 풀이하여 이것을 물리쳤더니 한나절이 채 안되어 또 울었다.<sup>28)</sup>
3. 정명 7년 경진 3월에는 황룡사 탑 그림자가 寸毛舍知의 집 뜰 안에 한 달이나 거꾸로 서 있었다. 또 10월에는 사천왕사 오방신의 활줄이 모두 끊어졌고, 벽화의 개가 뜰로 쫓아나왔다가 다시 벽속으로 들어갔다.<sup>29)</sup>

위 사료 B에서 알 수 있듯이 경명왕이 즉위한 이후 거의 매년 황룡사와 사천왕사에서는 재이가 일어났다.<sup>30)</sup> 이렇듯 앞선 신덕왕대와 마찬가지로 경명왕대에도 즉위 초에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다. 이는 박씨로서 왕위를 계승한데 따른 신라 지배층 내부의 분열<sup>31)</sup>과 후삼국 관계에서 생기는 국가적인 위기의식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명왕은 이런 위기 상황을 나름대로 극복하려는 움직

27)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3년.

28) 《삼국유사》 권2, 기이2, 경명왕.

29) 《삼국유사》 권2, 기이2, 경명왕.

30) 이때의 재이에 대해서는 경명왕의 정통성과 정책에 대한 반발 세력이 있었다고 보거나(신호철, 앞의 논문, 1989, 24쪽; 이명식, 앞의 논문, 2006, 83쪽), 당시 대고려정책에 대한 반발이 심했음을 드러낸다고 설명되고 있다(전기웅, 앞의 논문, 2008, 352쪽; 정선용, 앞의 논문, 2009, 149~150쪽).

31) 신라 하대 박씨왕의 실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삼국사기》 등에 박씨로 기재된 것을 볼 때, 그 실재 여부를 떠나 신덕왕대에 이르러 이전의 왕들과 차이를 두려고 했음은 분명하다. 신라 하대 정치사의 전개과정을 다룬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박씨왕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귀족들의 반발 역시 꾸준히 계속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연구사 정리는 전기웅, 앞의 책, 2011, 228~230쪽 참조.

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신덕왕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명왕은 즉위 원년에 동모제 위응을 상대등으로 삼아 반대세력을 견제하는 한편, 효종의 조카 유림을 시중으로 삼고, 재위 3년에는 김성을 각찬으로 삼는 등 반대세력을 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sup>32)</sup> 또한 재위 2년에는 진경대사 심희를 초청하여 그에게 ‘理國安民의術’을 듣고, 모든 관료들로 하여금 제자를 칭하게 하였다.<sup>33)</sup> 이후 고려와 우호 관계를 맺는 과정을 겪으면서 신라 대내정세는 안정을 취해갔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침내 경명왕 5년 정월 삼보에 관한 이야기를 왕실과 관료들, 그리고 승려들에게까지 공론화시킨 후 그 가운데 잊혀졌던 聖帶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 C-1. 왕이 마침내 창고를 열어보게 했으나 보이지 않았다. 이에 후일에 齋祭를 올린 후에야 이를 보게 되었는데, 그 띠는 금과 옥으로써 꾸며진 것이며 매우 길어서 보통 사람은 떨 수 없는 것이었다.<sup>34)</sup>
2. 왕이 드디어 南庫를 열어보매 비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대낮이

32) 유림은 신덕왕 즉위 시 경쟁하였던 효종의 조카라는 점에서 당시 김부(경순왕, 효종의 아들)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시중으로 삼았을 것으로 본다. 한편, 김성은 효공왕대 상대등을 지냈던 인물로 박씨 왕족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김성을 각찬으로 삼은 것 역시 포섭 차원에서였을 것으로 보인다(조범환, 앞의 논문, 1991, 12~14쪽 ; 이명식, 앞의 논문, 2006, 46쪽).

33) … 가마가 (918년) 11월 4일에 이르러 과인은 면류관과 예복을 정돈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여, 예궁으로 인도하고 난전에서 공경히 만났으며, 특별히 스승과 제자의 예를 표하고 공손히 숭앙하는 자세를 나타내었다. 대사는 법복을 높이 휘날리며 법좌에 올라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케 할 술수를 설하고, … 다음날 마침내 모든 관료들에게 명하여 대사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 나란히 □(제자)를 칭하게 하였다(남무희 역, 《봉림사진경대사보월능공탑비》).

34)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5년.

어두컴컴하여 볼 수가 없었다. 이에 날을 택하여 齋祭를 지낸 후에야 이를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이 진평왕이 성골의 왕이므로 일컬어 聖帝帶라 하였다.<sup>35)</sup>

그러나 聖帶를 찾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황룡사의 나이 90이 넘은 승려로부터 그것이 왕실창고로 보이는 ‘南庫’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sup>36)</sup> 경명왕이 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따로 날을 택해 齋祭를 올리고 난 후에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귀한 물건이 원래 자리에서 모습을 감추었다가 간절한 기도나 참회 끝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은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신라 효소왕대 사라졌던 만파식적이 여러 날의 기도 끝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도 그 한 사례가 될 수 있겠다.<sup>37)</sup>

聖帶를 찾는 과정에서 경명왕이 치렀던 것은 齋祭였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 齋祭라는 표현은 여기서 유일하게 보인다. 때문에 이 당시의 齋祭는 그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를 알 수가 없다. 다만 齋는 致齋와 散齋를 일컫는 것으로 致齋는 마음을 專一하게 하기 위해 심신을 潔淨하는 예절을 말하고, 散齋는 그 행동을 근신하여 禁欲·禁樂·禁弔喪하는 예절을 말한다. 한편 祭는 제사의 종류 가운데 地祇에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 단어라고 한다.<sup>38)</sup> 이렇게 단어 뜻만으로 본다

3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0년 여름 5월.

36) 이 외에도 만파식적을 보관한 內庫(혹은 天尊庫)와 세오녀의 명주실을 보관했다는 御庫(귀비고) 역시 왕실 소속의 보고로 보인다(김창석, 《삼국과 통일신라의 유통체계 연구》, 일조각, 2004, 125쪽).

37) 《삼국유사》 권3, 탐상4 백률사. 그런데 이런 신이함은 특히 부처의 사리와 관련된 설화에서 자주 등장한다. 《관세음응험기》에는 백제 무왕이 제석정사에서 자취를 감춘 사리를 범사를 청하고 참회한 끝에 다시 찾은 이야기가 전한다.

38) 김택민 주편, 《당육전》 上, 2003, 신서원, 431쪽 및 444쪽.

면 齋祭는 몸과 마음, 행동거지를 정갈하게 하고 地祇에 제사지낸다는 뜻이 된다.

그런데 신라 중고기에 聖帶 이른바 진평왕의 天賜玉帶는 하늘과 연결된 물건이었다. 또한 진평왕은 ‘郊廟大祀’때 이 대를 착용하였는데, 이때 ‘교묘대사’란 제천의례와 시조 제사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신궁제사라 한다.<sup>39)</sup> 그렇다면, 경명왕때 지낸 齋祭를 글자 그대로 풀어내면 땅에 제사를 지낸 것인데 이는 聖帶의 성격과 잘 맞지 않아 의문을 자아낸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은 글자의 의미를 따르기 보다는 이후 고려시대의 용례를 따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sup>40)</sup> 고려시대에는 齋祭가 제사의 한 형태로 팔관회·연등회와 밀접한 관련을 보이는데, 이때의 용어가 경명왕때에도 소급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신라는 삼보를 모두 갖추게 된다. 이 시기, 경명왕 5년을 기점으로 황룡사와 사천왕사에서 즉위 이후 일어났던 재이 현상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명왕은 즉위 초부터 지배세력간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고려와의 우호 관계를 추진하면서 지배세력의 관심을 국외적인 것으로 돌려 내부적인 결속을 더욱 다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어 삼보를 갖추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신라 왕실의 입지를 단단히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sup>41)</sup>

39)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37쪽 참조.

40) 고려시대 경우에는 齋祭가 제사의 한 형태로 기록에 등장하는데, 주로 서경에 행차하였을 때 치러진다. 고려시대의 서경 재제는 팔관회 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거나(김철웅, 《고려시대 《잡사》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10, 48쪽), 혹은 서경에서 행해진 연등회나 팔관회 행사의 한 형태로 본다(안지원, 《고려의 불교 의례와 문화》, 서울대 출판문화원, 2005, 94쪽, 158쪽). 한편, 재제에는 팔관회·연등회·태조진전제사 등 다양한 제사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한다(김창현, <고려시대 평양의 동명 숭배와 민간신앙> 《역사학보》 188, 2005, 104~109쪽).

그런데 삼보의등장이 어떤 측면에서 활용되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고려 태조 왕건의 경우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룬 신라 중고기에 대한 관심에서 삼보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sup>42)</sup> 이를 받아들인 신라 역시 고려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신라 중고기에 성립했던 세가지 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활용은 약간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 1. 천사옥대

우선 삼보 가운데 가장 늦게 성립한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천사옥대는 왕실의 권위를 높여줄 수 있는 것으로 주목되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볼 경우 고려와 신라, 신라 중고기와 신라 하대에 천사옥대가 가지는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하지만, 신라 중고기 천사옥대의 설화가 그것을 진평왕에게 건네 준 존재인 上皇 곧 제석천 혹은 고유의 天에 그 중심이 맞춰져 있는데,<sup>43)</sup> 사료 B에서는 그

41) 하지만 聖帶를 찾아 삼보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이들이 보물로 불릴만한 근거가 없다. 이에 신라 중대에 만파식적을 보물로 冊號했던 것처럼(《삼국사기》 권3, 답상4 백옥사) 이 시기에도 삼보에 책호하는 형태로 격을 높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42) 특히 《고려사》 권92, 열전5 최웅전에서 왕건이 황룡사 9층탑에 보인 관심과 그것을 모방해서 개경과 서경에 각각 7층탑과 9층탑을 세우고자 하였던 모습에서 잘 알 수 있다(김상현, 앞의 논문, 1980, 65~66쪽). 한편, 聖帶도 신라 중고기 진평왕으로 대표되는 신라 왕실의 권위에 대한 관심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정선용, 앞의 논문, 153쪽).

43) 이때 옥대의 성격은 上皇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상황을 제석천으로 볼 경우 옥대는 불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김영태, <신라불교천신고> 《불교학보》 15, 1978, 67쪽; 안지원, <신라 진평왕

명칭을 성골인 진평왕이 찾다고 하여 聖帶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차이를 보인다.

물론 두 경우 모두 왕권의 강화를 의도로 하고 있다는 것에서는 동일하나, 본문에서 上皇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聖帶라고 불렀다는 사실만 언급한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성골이라는 왕계 자체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기대서 그 성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聖帶를 경명왕이 찾은 것은 박씨 왕으로서 가졌던 왕권의 정통성을 보완하고자 했던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경명왕이 천사옥대를 찾은 같은 해 흥륜사에서 제석천의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경명왕 5년 5월 15일 제석천이 내려와 땅가진 흥륜사의 수리를 도왔다는 내용 역시 왕권의 강화 노력과 관련하여 고민할 만하다.<sup>44)</sup> 흥륜사는 경명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찰로, 그가 흥륜사의 상좌 언립을 통해 심회를 초청한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해 준다.<sup>45)</sup>

## 2. 황룡사 장육존상

천사옥대와 다르게 황룡사의 장육존상은 호국보로서의 모습에 주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

대 제석신앙과 왕권>《역사교육》 63, 1997, 89~90쪽 ; 이정숙, <진평왕대 왕권강화와 제석신앙>《신라문화》16, 1999, 6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유의 天관념의 소산이라고 보기도 한다(전창범, 앞의 논문, 2000, 196쪽 ; 채미하, 앞의 논문, 2006, 29~30쪽).

44) 《삼국유사》 권3, 탑상4 흥륜사 보현보살조 참조.

45) 한기문, <신라 하대 흥륜사와 금당 십성의 성격> 《신라문화》 20, 2002, 181쪽.

- D-1. 바다 남쪽에서 큰 배 한 척이 떠와서 하곡현 사포-지금의 울주 곡포다-에 닿았다. 이 배를 검사해보니 牒文이 있었다. 인도 아유왕이 황철 5만 7천 근과 황금 3만 푼을 모아서-《別傳》에는 철 40만 7천 근과 금 1천 냥이라 했는데 아마 잘못된 것 같다. 혹 3만 7천 근이라고도 한다. 釋迦三尊像을 주조하려다가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띄우면서 “인연 있는 국토에 가서 장륙존상을 이루어달라”고 축원했다는 것이다. 한 부처와 두 보살의 상도 모형으로 만들어 함께 실려 있었다. 하곡현의 관원이 문서로써 아뢰었다. 왕은 그 고을 성 동쪽의 높고 메마른 땅을 골라 동축사를 세워 그 세 불상을 모시게 하고 그 금과 철은 서울로 수송하여 대건 6년 갑오 3월-〈寺中記〉에는 계사년 10월 17일이라 했다-에 장륙존상을 주조했는데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 무게는 3만 5천7근으로 황금 1만 1백98푼이 들었으며 두 보살상에는 철 1만 2천 근과 황금 1만 1백36푼이 들었다.
2. 장륙존상을 황룡사에 모셨더니, 그 이듬해에 불상에서 눈물이 발꿈치까지 흘러내려 땅이 한 자나 젖었다. 그것은 대왕이 세상을 떠날 조짐이었다. 혹은 불상이 진평왕 때에 와서 완성되었다 하나 그릇된 말이다(위와 같음).
  3. 《별본》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 마지막에 신라국에 이르자 진흥왕이 문익립에서 그것을 주조하여 불상을 완성하니 모습이 다 갖추어졌다. 아유왕은 이에 근심이 없게 되었다.<sup>46)</sup>

사료 D-1에서 알 수 있듯이 황룡사 장육존상이 조성된 시기는 진흥왕 34년~35년(573~574)이었을 것으로 보인다.<sup>47)</sup> 장육존상은 아유왕상 계열의 석가여래상이었으며 두 보살이 협시하는 삼존불의 형태였다. 또한 사료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그 규모도 엄청난 것이어서, 진흥왕 30년(569)에 황룡사가 완공된 이후에도 장육존상을 안치하기 하기 위해 진평왕 6년(584)에 새로 금당을 조성하기에 이른다.<sup>48)</sup>

46) 《삼국유사》 권3, 탑상4, 황룡사 장육상.

47) 이기백, <황룡사와 그 창건>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68쪽.

48) <寺記>에 이르기를 진평왕 5년 갑진에 금당이 조성되었다(《삼국유사》 권3, 탑상4 황룡사장육). 하지만 진평왕대 갑진년은 재위 6년이었으므로

한편 이 당시 황룡사 장육존상이 가졌던 호국 보물로서의 모습은 D-2에서 확인된다. 불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진흥왕의 죽음을 암시하였다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중국 아육왕상과 관련한 신앙에 대한 기록에서 “아육왕상은 종종 이적을 보이는데 예컨대 국왕이나 고관대작이 참배하면 放光을 하며, 반대로 전란의 발생이라든가 왕조의 멸망 및 국왕의 죽음을 앞두고는 流汗, 垂淚와 같은 불길한 조짐을 미리 나타내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이해를 더 하였다.<sup>49)</sup>

그런데 문제는 이후 황룡사 장육존상이 신라 하대까지 호국 보물로서 기여한 구체적인 사료를 거의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선덕여왕이 영묘사에 장육상을 새롭게 조성해 안치함으로써 더 이상 황룡사의 장육존상은 유일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점들은 신라 중고기 이후 황룡사 장육존상의 보물로서의 기능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하였다.<sup>50)</sup>

하지만 역시 신라의 장육존상은 황룡사의 것으로 대표되었던 것 같다. 앞의 사료 A-1·2에서 신라 삼보를 설명할 때 ‘장육존상과 9층탑’이라고 했을 뿐, 어느 사찰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당연히 황룡사의 것을 지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불상 조성 재료에서도 황룡사와 영묘사의 것은 차이가 있다. 황룡사의 장육존상이 엄청난 규모의 철과 황금으로 조성된 것에 반해, 영묘사의 장육존상은 흙으로 빚은 소상이었던 것이다.<sup>51)</sup> 비록 경덕왕 23년(764)에 改金하지만, 이미 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수정되어야 한다(이기백, 앞의 논문, 1986, 70쪽).

49) 남동신, <신라 중고기 불교치국책과 황룡사> 《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2, 2001, 16쪽.

50) 김상현, 앞의 논문, 1980, 65~66쪽 : 앞의 책, 1999, 70~71쪽.

51) 선덕여왕이 절을 짓고 塑像을 만든 인연은 <양지법사전>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삼국유사》 권3, 탑상4 영묘사장육).

### 3. 황룡사 9층 목탑

황룡사 9층 목탑의 조성 시기는 세 가지 중 가장 늦은 선덕여왕 14년~15년(645~646)이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앞의 장육존상과 다르게 꾸준한 관심 속에서 성덕왕 19년(720), 경문왕 11년(871)에 2번 중수가 이뤄졌다.

이렇게 황룡사 9층 목탑이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요시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 사상적 배경에 있다.

- E-1. 신인이 말하였다.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았으므로 덕은 있어도 위엄이 없소. 그 때문에 이웃 나라가 침략을 도모하니 그대는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오.” 자장법사는 물었다. “고향에 돌아가서 무슨 이익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신인은 말했다. “황룡사의 호법룡은 나의 맏아들이요. 범왕의 명령을 받고 그 절에 와서 보호하고 있으니, 그대가 본국에 돌아가 절 안에 구층탑을 이룩하면 이웃나라는 항복해 오고 九韓이 조공을 바치니 國祚가 길이 태평할 것이며, 탑을 세운 뒤에는 팔관회를 베풀고 죄인을 놓아주면 외적이 침범하지 못할 것이요. 또 우리를 위하여 경기 남안에 정사 한 채를 지어 내 복을 빌어주오. 나도 또한 그 은덕을 갚겠소.” 말을 마치자 드디어 옥을 바치더니 갑자기 형체를 숨기고 나타나지 않았다. -<사증기>에는 중남산 원항선사에게서 탑을 세울 이유를 들었다고 했다.<sup>52)</sup>
2. (자장은) 선덕왕 12년 계묘년에 신라에 돌아오고자 하여 중남산의 원항선사에게 머리 조아려 사직하니 선사가 “내가 觀心으로 그대의 나라를 보매, 황룡사에 9층의 탑을 세우면 해동의 여러 나라가 모두 그대의 나라에 항복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중략) 과연 삼한을 통합하여 □로 만들고 군신이 안락한 것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에 힘입은 것이다.<sup>53)</sup>

52) 《삼국유사》 권3, 탑상4 황룡사구층탑.

53) <황룡사구층탑찰주본기>

3. 처음 태조의 나이 삼십이었을 때 꿈에 9층 금탑이 海中에서 있는데, 자신이 그 위로 올라간 것이 보였다.<sup>54)</sup>
4. 태조가 최웅에게 일러 말하기를 “옛날 신라는 9층탑을 지어서 마침내 통일의 업을 이루었다. 지금 개경에 7층탑을 세우고 서경에 9층탑을 세워서 현묘한 공덕을 빌리어 群醜를 제거하고 삼한을 합하여 일가를 이루고자 하니, 경은 나를 위하여 發願疏를 지으시오.” 하였다.<sup>55)</sup>

E-1에서 처음 9층 목탑의 조성 연기를 통해서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라는 염원과 함께 선덕여왕의 왕권 강화 의지를 볼 수가 있다.<sup>56)</sup> E-2는 신라 하대 경문왕때 9층 목탑을 중수할 때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삼한 통합과 군신의 안락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료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다른 모습이 보인다. 바로 사료 E-2에서 삼한을 통일한데 그치지 않고 지금 현재 군신의 안락함 역시 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는 점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황룡사 9층 목탑은 통일 이후에도 중시되었고, 몇 차례에 걸쳐 중수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사료 E-3·4 단계에 가면 더 큰 변화가 보인다. 특히 D-4에서 왕건이 9층탑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신라 선덕여왕때와는 다르다. 선덕여왕때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비는 보다 수동적인 자세였다면,<sup>57)</sup> 고려 태조 왕건은 ‘群醜를 제거하고 삼한을 합

5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 4년.

55) 《고려사》 권92, 열전5 최웅.

56) 이기백, 앞의 논문, 1986, 72~73쪽.

57) 과연 이 당시 신라가 삼국통일에 대한 염원을 표방할 수 있었을가에 관한 의문(김상현, 앞의 논문, 1980, 62~63쪽 : 앞의 책, 1999, 67쪽)과 신인이 언급한 내용이 신라가 통일을 이루고 一統三韓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할 때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견해(신동하, <신라 불국토 사상과 황룡

하여 일가를 이루'려는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같은 황룡사 9층 목탑이지만, 그 엄원하는 바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당 시기에 맞게 조금씩 그 의미에 변화를 주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주목되는 바이다.

반면, 신라 하대에 등장하는 황룡사 9층 목탑의 모습은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다.

- F-1. 정명 7년 경진 2월에 황룡사 탑의 그림자가 금모 사지의 집 뜰 안에 한 달이나 거꾸로 서 있었다.<sup>58)</sup>  
 2. 3월에 황룡사 탑이 요동하여 북쪽으로 기울어졌다.<sup>59)</sup>

위의 사료 F는 각각 경명왕 4년(920)과 경애왕 4년(927)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호국사찰인 황룡사에서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까닭에 위 사료의 내용은 국가 안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장육상과 마찬가지로 예언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sup>60)</sup> 이렇게 본다면 같은 시기 신라와 고려에서는 9층 목탑의 각기 다른 측면을 필요로 하였던 같다.

이렇게 삼보를 구성하는 세 가지 보물에 대해 각각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당시 황룡사와의 관계이다. 우선 삼보 가운데 2가지가 황룡사에 자리하였고, 또 황룡사의 나이 90세가 넘은 승려만이 진평왕의 옥대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들을 보았을 때 당시 삼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황룡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사>《신라문화재학술논문집》 22, 2001, 75~77쪽)가 참고된다.

58) 《삼국유사》 권2, 기이2, 경명왕.

59)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애왕 4년.

60) 이기백, 앞의 논문, 1986, 72쪽.

이와 관련해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황룡사의 90세 넘은 승려의 존재다. 그의 나이를 엮두에 두었을 때, 그가 옥대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꽤 오래 전에 이에 대한 주목이 이뤄졌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특히 경문왕 12년(872) 황룡사 9층 목탑이 대대적으로 중수되었다는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주목된다.<sup>61)</sup> 이미 지적되고 있듯이 경문왕때에는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신라 중고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다. 이런 가운데 황룡사와 옥대에 관한 관심도 같이 높아졌던 것 같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신라 경명왕 이전에 삼보에 관한 이야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보다 황룡사 승려가 알고 있었던 것은 ‘삼보’가 아니라 ‘옥대’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경문왕은 황룡사와 옥대 뿐 아니라 중대의 보물이었던 만파식적과 현금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던 점에서,<sup>62)</sup> ‘삼보’를 등장시킨 경명왕과는 다르다. 이로 볼 때, 경명왕때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 신라를 보호할 보물 ‘삼보’를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닐까 한다.

#### IV. 신라 하대 삼보의 의미

이제 마지막으로 왜 왕건은 다름 아닌 삼보를 내세웠고, 어떤 이유로 당시 후삼국관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라 삼보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1) 경문왕대 황룡사 9층목탑의 중수에 따른 의미에 관해서는 조범환, <신라 하대 경문왕의 불교정책> 《신라문화》 16, 1999, 35~36쪽 참조.

62) 송은일, 《신라 하대 경문왕계 집권기의 정치운영》,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2007, 35~55쪽.

- G-1. 후에 고려왕이 신라를 치려고 하면서 말했다. “신라에 세 가지 보물이 있으므로 침범할 수 없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황룡사의 장륙존상이 첫째요, 그 절의 9층탑이 둘째요, 하늘이 진평왕에게 준 옥대가 그 셋째입니다.” 이에 왕은 신라를 칠 계획을 그만 두었다.<sup>63)</sup>
2. 후에 고려왕이 신라를 치러 하다가 말했다. “신라에 세 가지 보물이 있어서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데 무엇을 이름이냐?” “황룡사의 장륙존상과 9층탑, 그리고 진평왕이 하늘로부터 받은 옥대입니다.” 그래서 침범할 계획을 중지하였다. 주나라에 九鼎이 있기 때문에 초나라 사람들이 감히 주나라를 엿보지 못했다 하니, 이러한 경우일 것이다.<sup>64)</sup>
3. 논평한다. 옛날 황제가 明堂에 앉아서 傳國璽를 쥐고서 九鼎을 벌여놓은 것은 마치 임금의 장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한유는 이를 논해서 “하늘과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태평스러운 터전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명당·전국새·구정이 해내는 것이 아니다. 명당·전국새·구정을 세워서 중하게 여김은 그것을 과시하는 사람의 말이 아닐까?”고 말했다. 하물며 이 신라의 이른바 세 가지 보배도 또한 사람들이 만든 사치에서 나왔을 따름이니,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찌 반드시 이것이 필요하겠는가? … 태조는 신라 사람들의 말을 듣고 물어보았을 뿐이지 귀중하게 여길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sup>65)</sup>

사료 G를 통해 당시 삼보는 호국적인 것인 동시에 신라가 존속되어야 하는 명분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sup>66)</sup> 비록 당대의 인식과 두 사서가 편찬될 때의 인식이 섞여 있어서 혼란을 주고 있지만, 사료의 내용으로 보아 신라의 삼보가 주나라의 九鼎과 비견될 만한 보물이었다는 인식이 당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67)</sup> 고려가 삼보를 명분으로

63) 《삼국유사》 권1, 기이1, 천사옥대.

64) 《삼국유사》 권3, 탑상4 황룡사구층탑.

65)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명왕 5년.

66) 김상현, 앞의 책, 1999, 56~57쪽.

67) 사료 G-3의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왕건이 신라인의 말을 듣고 관

신라에 대한 공격 계획을 멈췄다는 것은 이를 반영해 준다.

그런데 삼보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후삼국 관계의 명분으로서 ‘尊王의 義’가 제기된 것과는 관련이 있다.<sup>68)</sup> 이 시기 고려가 신라에 대해 ‘존왕의 의’를 표명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sup>69)</sup> 하지만 당시 후백제가 대외적으로 신라의 지방관을 자칭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sup>70)</sup> 고려 역시 뚜렷하게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이러한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한다. 따라서 고려는 신라 경명왕 4년에 이르러 삼보를 화제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신라는 경명왕 5년에 삼보를 갖춤으로써 그 이념적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sup>71)</sup> 하지만 신라가 고려와의 논의 속에서 삼

심을 가졌을 뿐이라고 한 것은, 태조에 대한 변명이라기보다는 정당한 왕도정치를 강조하여, 신비주의에로 일탈된 정치세력에 대한 경고를 의도한 것이었다(이강래, 《삼국사기 전거론》, 민족사, 1996, 407~408쪽). 이는 김부식의 사관에 따른 서술로, 그가 이렇게 비판하였다면 인용한 원문에서는 《삼국유사》에서와 같이 九鼎에 비견하여 서술하지 않았을까 한다.

- 68) 정선용은 당시 ‘尊王’의 개념을 춘추시대 관중의 ‘尊王攘夷’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폐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양면성을 띤 것이었다고 보았다(정선용, 앞의 논문, 2010, 69~70쪽).
- 69) 기록상에 ‘존왕의 의’가 분명히 표기되는 것은 후백제의 건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순왕을 옹립한 뒤 고려와 주고받은 서신이다. 따라서 고려가 ‘존왕의 의’를 표명한 시기를 건훤과 서신을 주고받은 태조 10년으로 보기도 한다(음선혁, 앞의 논문, 1995, 100쪽 ; 조범환, 앞의 논문, 2000, 117쪽).
- 70) 건훤은 신라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지만, 신라왕조의 권위라든가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였다. 스스로 신라의 지방관임을 자칭하였으며, 대외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였다(신호철, 앞의 논문, 1989, 16~17쪽). 반면, 건훤의 관직은 신라에서 제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황선영, <후삼국의 대외관계>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2001, 70쪽).
- 71) 고려가 신라에 자구책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한다(정선용, 앞

보를 갖추었다는 점에서, 고려의 ‘존왕의 의’는 후백제의 그것과는 달라지게 된다. ‘존왕의 의’란 義를 매개로 군신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상호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sup>72)</sup> 후백제의 경우 스스로 칭신하여 일방적으로 ‘존왕의 의’를 표명하였는데,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고려와 달리 후백제는 신라를 직접 공격하는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경명왕때의 이런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적되었듯이 경애왕은 경명왕때와 같은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있다.<sup>73)</sup> 또한 즉위 원년(924)에는 황룡사에서 백고좌를 열고 불경을 풀이하는 한편 선승 3백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여전히 황룡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sup>74)</sup> 이런 가운데 삼보도 경명왕때와 마찬가지로 중시되었을 것이다.

한편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은 재위 9년(935) 10월 마침내 고려에 귀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2년 후 고려 태조 왕건에게 천사옥대를 바친다. 경명왕 5년 이후 신라 삼보가 다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의 논문, 2010, 40쪽).

72) 義를 매개로한 군신관계에 대해서는 尾形勇·薛森健介·伊東貴之·佐藤眞一, <君臣> 《중국사상문화사전》, 2011, 396~397쪽 참조.

73) 조범환, 앞의 논문, 1991, 16쪽 ; 전기웅, 앞의 책, 2011, 272쪽. 물론 경애왕때의 신라와 고려의 관계는 경명왕때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뒤를 이어 즉위한 경순왕도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다는 점에서, 신라의 권위만을 앞세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대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을 볼 때, 이러한 신라의 대응 노선에는 큰 변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편으로 당시 신라의 한계로 지적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74) 제55대 경애왕 이 즉위한 同光 2년 甲申 2월 19일에 皇龍寺에서 百座를 열어 불경을 풀이하였다. 겸하여 禪僧 3백 명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대왕이 친히 향을 피우고 불공을 드렸다. 이것이 백좌에서 함께 설한 禪敎의 시초이다(《삼국유사》 권2, 기이2, 경애왕).

다. 당시 신라 삼보가 지녔던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경순왕이 고려 태조 왕건에게 천사옥대를 바친 것은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H. 10월 왕은 사방의 토지가 다 타인의 소유로 되어 국력은 약해지고 형세가 위태로워 능히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겠으므로 군신과 회의하고 국토를 들어 태조에게 항복하기를 피하매, 군신의 의론은 혹은 옳다고 하고 혹은 불가하다 하였다. 왕자는 말하되,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으니 오직 마땅히 충신과 의사로 더불어 민심을 수합하여 스스로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후에 말 것이니, 어찌 천년사직을 하루아침에 쉽사리 남에게 내줄 것이라.”하였다. 왕은 가로되,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아 형세는 능히 온전히 할 수 없으니 이왕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하여 무죄한 백성들을 참혹하게 죽이는 것은 내가 차마 하지 못하는 바라.”하고, 이에 시랑 김봉휴로 하여금 국서를 가지고 가서 태조에게 귀부를 청하게 하였다. 왕자는 통곡하며 왕을 사별하고 곧 개골산으로 들어가 바위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마의와 초식으로 일생을 마쳤다.<sup>75)</sup>

935년 10월 경순왕은 고려로 귀부할 것을 결심하고 군신과 회의를 하였다. 이때 경순왕이 귀부를 결정한 것은 당시 급변하였던 대외정세 때문이었다. 후당은 경순왕 7년(933)에 고려를 책명하여 ‘고려국왕’으로 삼았으며,<sup>76)</sup> 후백제의 견훤은 경순왕 9년(935) 6월에 고려에 귀부하였다.<sup>77)</sup> 이 두 가지 사건은 모두 신라에게 큰 충격이었다.

75) 《삼국사기》 권12, 신라본기12, 경순왕 9년.

76) 조범환은 이에 관해 후당에서는 신라보다 고려를 한반도의 정통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조범환, <신라말 경순왕의 고려 귀부> 《이기백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상), 1994, 416쪽). 하지만 그 책명이 ‘고려국왕’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런지는 의문이다.

77) 견훤의 귀부와 경순왕의 귀부가 관련이 있음은 이미 지적되었다. 견훤의 귀부에 영향을 받아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 귀부하게 되었다고 보거나(이기백, <왕건> 《고려귀족사회의 형성》, 일조각, 1990, 25쪽), 고려 태조

우선, 후당의 고려 책명은 더 이상 한반도 내에 왕이 1명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이 당시 신라의 대외 정책은 국가와 왕실의 정통성과 위상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흔들리는 것이었다. 이는 위 사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경순왕의 말은 나라의 안위를 이제 天命에 의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울러 후백제 견훤의 귀부도 신라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은 것이었다. 지금까지 후삼국은 서로 팽팽하게 균형을 맞춰온 까닭에 어느 한 나라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sup>78)</sup> 그런데 견훤이 고려에 귀부하면서 그 균형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비록 후백제가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큰 것이었다.

이에 경순왕은 재위 9년에 시랑 김봉휴로 하여금 국서를 가지고 가서 태조에게 귀부를 청하게 하였던 것이다. 군신 회의 때 귀부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왕자처럼 왕경을 떠나 은거했을 것으로 보인다. 《삼국유사》 기이편의 김부대왕조에 따르면 그의 막내아들은 머리를 깎고 화엄종에 들어가 승려가 되어 법수사와 해인사에서 머물렀다고 한다.

- I-1. 기미에 신라왕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본국이 오랫동안 위란을 겪으며 나라의 운수가 이미 다하여 다시 기업을 보존할 가망이 없는 지라 원컨대 신하의 예로서 죄없고자 하나이다.”라고 하며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sup>79)</sup>
2. 신유에 신하들이 아뢰기를, “하늘에 두 해가 없고 땅에 두 임금이

---

가 견훤을 통해 경순왕의 귀부를 종용했다고 보기도 한다(신호철, 앞의 논문, 1989, 38~41쪽). 한편, 견훤의 귀부는 경순왕에게 귀부 시기를 선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게 하였다고 한다(김복순, <나말려초 전환기와 경순왕>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940쪽).

78) 후백제 견훤이 경주를 습격하여 경애왕을 죽이고 경순왕을 옹립하는데 그친 것은 분명 이러한 측면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79)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8년 11월.

없다 하옵거늘 한 나라에 두 임금을 백성이 어떻게 감당하겠나이까. 원하옵건대 신라왕의 청을 들어 주옵소서.”라고 하였다.<sup>80)</sup>

3. 임신에 천덕전에 나아가서 백관을 모으고 말하길, “짐이 신라와 함께 삼혈하고 동맹하여 양국이 호의를 길이 맺어 각각 사직을 보전할까 하였는데 이제 신라왕이 군이 신하가 되기를 청하고 여러 신하들도 또한 이렇게 하는 것을 옳게 여기니 짐이 마음으로는 비록 부끄럽게 여기나 여러 사람의 뜻을 어기기가 어렵도다.”라 하고 신라왕을 뜰아래에서 알현하는 예를 받으니 신하들의 축하소리가 궁궐을 울렸다. 이에 김부를 政丞으로 삼고 태자의 상위에 두어 세록 1,000석을 급여하고 신란공을 세워 그에게 내려 주었다. 그의 시종자들도 아울러 수록하여 전록을 너럭히 내리고 신라국을 삭제하여 경주라 하고 이어 식읍으로 삼아 주었다.<sup>81)</sup>

경순왕은 귀부한 다음 달 고려 태조 왕건에게 글을 올려 신하의 예를 청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에 처음에 왕건은 거절하였지만, 이내 신하들의 설득에 받아들인다.<sup>82)</sup> 그리고 다음 달, 마침내 경순왕은 천덕전 뜰 아래에서 고려 태조 왕건에게 알현의 예를 시행한다. 또한 왕건이 신라국을 삭제하여 경주로 삼음으로써 신라는 완전히 고려에 흡수되게 되었다.

그런데 경순왕은 무슨 이유로 귀부한 다음 달에 고려 태조 왕건에게 稱臣의 청을 하였을까. 이는 당시 호족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순왕의 귀부가 곧 왕건과의 군신관계 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데 있다.<sup>83)</sup> 이런 가운데 경순왕은 고려에서 자신의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기에 ‘칭신의 예’를 청하지 않았을까 한다. 특히 경순왕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귀부 이전에 충분히 논의되었을 가능

80)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8년 12월.

8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8년 12월.

82) 고려 태조 왕건에게는 그간 존왕의 대상이었던 경순왕의 稱臣을 받아들이는데 명분이 필요했다고 한다(정선용, 2009, 102~103쪽).

83) 정선용, 앞의 논문, 2009, 102쪽.

성이 있다.<sup>84)</sup> 이에 경순왕은 이를 위해 공식적인 청신 절차의 명분을 빌어 드러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침내 신라 삼보가 다시 등장하게 된다.

- J. 癸丑에 金傳가 鐫金安玉排方腰帶를 바쳤는데 길이가 열 뺨이며 62과로 되어 있었다. 신라가 보물로 소장하여 오기를 거의 400년이나 되었는데 세상에서는 聖帝帶라 불렀던 것이다. 왕이 이를 받아 元尹 익훤에게 명하여 物藏에 보관하게 하였다.<sup>85)</sup>

위 기록은 태조 20년(937)에 경순왕이 신라 삼보의 하나인 천사옥대를 바치고 있는 내용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신라 경명왕 4년(920) 처음 삼보에 대해 언급한 이후 약 18년이 지난 이후에 천사옥대를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왕건은 이를 받아 物藏에 보관하게 하였는데, 이때의 물장은 物藏省을 말하며 寶藏을 관장하는 부서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옥대를 바친 시점이다. 경순왕은 앞서 태조 18년(935)에 ‘신하의 예’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신라 삼보 가운데 하나인 옥대를 바치는 시점은 이보다 2년 뒤인 태조 20년(937)인 것이다. 천사옥대는 신라 삼보 가운데서도 왕권 강화와 밀접한 것이다. 그런 옥대를 귀부한 뒤 얼마동안 가지고 있다가 바친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다.

다만 고려 태조 왕건이 경순왕으로부터 천사옥대를 받기 바로 전해(936)에 후백제의 신검을 토벌하고 마침내 통일의 업을 이뤘다는 점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태조는 이때 백제의 도성에 들

84)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18년 12월 임신조에 따르면 왕건은 이미 김봉휴가 항복을 청하러 왔을 때, 경순왕에게 자신이 신라의 종실과 결혼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이와외의 관련성도 고려해 볼 만 하겠다.

85)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20년 여름 5월.

어가 백성들을 위무하고, 돌아와서는 문무백관과 백성들의 朝賀를 받았다. 아울러 삼한을 정벌하고 신하된 자들에게 절의를 권고하고자 손수 《政誠》 1권과 《誠百僚書》 8편을 지어 중앙과 지방에 반포하였다고 한다.<sup>86)</sup>

이렇게 고려 태조가 삼한 통일과 그에 따라 새로 정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이 시기에 천사옥대는 그 의미를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때는 고려가 신라에 이어 새로운 통일 왕조로 자리한 시기이기 때문에, 신라 왕권의 상징인 천사옥대를 얻었다는 것은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고려가 신라 삼보를 소유하게 된 것을 통해 신라에 대한 계승 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국호를 ‘고려’로 사용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고구려 계승의식을 강하게 표명하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왕건의 출자가 궁예와 달리 고구려 유민이고, 즉위함과 동시에 서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로 본다.<sup>87)</sup>

하지만 앞서 살핀 내용을 근거로 할 때, 고려 건국 당시에는 역시 신라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이 주를 이루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천사옥대를 얻은 시점이 실질적으로 후삼국을 평정한 이후였다는 점은 이를 분명하게 해 준다. 또한 고려 시대에도 황룡사가 중시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황룡사의 9층 목탑은 고려 건국 이후에도 계속 중수되었으며, 숙종 원년(1096) 이후에는 황룡사지의 편찬도 이뤄졌던 것이다.<sup>88)</sup>

86)《고려사》 권2, 세가2, 태조 19년 9월조 참조.

87) 박용운, 《고려의 고구려계승에 대한 종합적 검토》, 일지사, 2006, 53~73쪽.

고려의 신라 계승 의식은 대개 건국 직후가 아니라 건국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성행하기 시작하였다고 본다.<sup>89)</sup> 물론 해당 시기의 상황에 따라 강조되는 계승 의식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의 신라 계승 의식은 특정 시기에 필요에 따라 강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고려 건국 당시부터 형성되었던 인식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신라 삼보는 신라 하대 경명왕 4년에 처음 등장한다. 그간에는 신라 삼보가 중고기에 성립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들이 ‘삼보’로서 함께 언급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삼보는 처음 고려 태조 왕건의 친신라정책에 대한 이슈로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후 삼보에 대해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신라이다. 신라는 경명왕 5년 삼보를 찾고 그것을 통해 대외관계에서 자국의 위상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후삼국관계 속에서 효용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8) 박승훈, <황룡사의 위상과 소속 승려들의 활동 -신라통일기~고려시대->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0, 47~53쪽.

89) 《삼국사기》가 편찬될 당시는 여진족의 숲이 압록강 일대를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고구려의 고토수복 염원을 단념할지 않을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신라 계승론자들이 득세하게 된 것으로 본다(이기동, <김관의> 《한국사시민강좌》 10, 1992, 133쪽). 또한 신라왕을 비롯한 귀족세력들이 고려의 중요 지배층으로 성장함과 더불어, 고려내에 신라적 요소가 그만큼 강화되어 이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한다(박용운, 앞의 책, 2006, 157쪽).

하지만 신라 삼보 각각이 신라 중고기에 성립한 것인 만큼 신라 하대에 어떤 필요로 요구 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삼보 각각과 신라 하대의 상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황룡사 장육존상은 현재 전하는 기록이 없어, 추후 황룡사와의 관계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황룡사 9층 목탑은 그 상징하는 의미가 유연해 중고기 이후 다양하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천사옥대의 경우는 앞의 두 보물과는 좀 다르다. 호국보로서의 모습 보다는 진평왕대의 왕권 강화적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 신라 하대에 이러한 성격이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신라 경순왕으로부터 천사옥대를 이어받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경순왕이 귀부와 동시에 천사옥대를 바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다가 후삼국이 통일된 뒤에야 바친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았다. 후삼국 통일 이후 고려는 신라를 잇는 통일 왕조로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와 함께 고려 태조는 천사옥대를 비롯한 삼보를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1. 저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편, 《황룡사 복원 기반 연구》, 2010.  
 김상현,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김창겸, 《신라하대 왕위계승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신호철, 《후백제 견훤정권연구》, 일조각, 1993.  
 양정석, 《황룡사의 조영과 왕권》, 서경문화사, 2004.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경문왕가》, 혜안, 2011.

## 2. 논문

- 김리나, <황룡사의 장육존상과 신라의 아육왕상계불상> 《진단학보》 46·47, 1979.  
 김복순, <나말려초 전환기와 경순왕> 《한국고대사연구의 현단계》, 주류성, 2009.  
 김상현, <신라 삼보의 성립과 그 의의> 《동국사학》14, 1980.  
 김영태, <신라불교천신고> 《불교학보》 15, 1978.  
 김재경, <신라 불교와 천신신앙> 《논문집》 13, 1996.  
 남동신, <신라 중고기 불교치국책과 황룡사>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2, 2001.  
 문명대, <신라 삼보 황룡사 금당 석가장육존상의 복원과 황룡사지 출토 금동불 입상의 연구> 《한국불교의 좌표》, 1997.  
 문수진, <왕건의 고려건국과 후삼국통일> 《국사관논총》 35, 1992.  
 신동하, <신라 불국토 사상과 황룡사>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22, 2001.  
 신호철, <신라의 멸망과 견훤> 《충북사학》 2, 1989.

- 신호철, <후삼국시대 호족과 국왕> 《진단학보》 89, 2000.
- 안지원, <신라 진평왕대 제석신앙과 왕권> 《역사교육》 63, 1997.
- 양정석, <황룡사 중금당의 조성과 장육상> 《선사와 고대》 12, 1999.
- 음창혁, 《고려태조왕건연구》,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1995.
- 이기백, <황룡사와 그 창건>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 이명식, <신라말 박씨왕대의 전개와 몰락> 《대구사학》 83, 2006.
- 이정숙, <진평왕대 왕권강화와 제석신앙> 《신라문화》 16, 1999.
- 전기웅, <신라의 멸망과 박씨왕가> 《한국민족문화》 31, 2008.
- 전창범, <진평왕 천사옥대의 재고찰> 《동양미술사학》 창간호, 2000.
- 정선용, <고려태조의 대신라 정책 수립과 그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27, 2009.
- 정선용, 《고려태조의 신라정책 연구》,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2010.
- 정중환, <신라성골고> 《이흥직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신구문화사, 1969.
- 조범환, <고려태조 왕건의 대신라정책> 《고문화》 55, 2000.
- 조범환, <신라말 경순왕의 고려 귀부> 《이기백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상), 1994,
- 조범환, <신라말 박씨왕의 등장과 그 정치적 성격> 《역사학보》 129, 1991,
- 조범환, <신라하대 경문왕의 불교정책> 《신라문화》 16, 1999.
- 주경미, <황룡사 9층 목탑의 사리장엄 재고> 《역사교육논집》 40, 2008.
- 채미하, <천사옥대와 흑옥대> 《경희사학》 24, 2006.
- 채상식, <신라사에 있어서 황룡사의 위상과 그 추이> 《신라문화》 16, 1999.
- 채상식, <황룡사 구층 목탑의 조성에 대한 비교사적 검토> 《선사와 고대》 21, 2004.
- 황선영, <후삼국의 대외관계> 《한국중세사회의 제문제》, 2001.

## ABSTRACT

## Three Treasures in the Later Period of Silla

Baek, Mi-sun

Silla is a state which left a lot of treasures. All these treasures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rise and fall of Silla, having a very great significance in the history of Silla. Among these treasures, Janyukjonbul[Image of sacred Buddha 3.84 meters in height], and 9-story wooden stupa at Whangryongsa Temple, and Cheonsaokdae[heaven-bestowed belt] were called 'Three Treasures' in the latter period of Silla[from 780AD to 935AD], which bore a very important meaning in that they witnessed the fall of Silla and foundation of Goryeo.

'Three Treasures in Silla' first emerged in the 4th ruling year of king Gyeongmyeong, until which people thought 'Three Treasures in Silla' might have come into existence during the early-to-middle period of Silla. However, it requires reconsidering in that there had been no case where these treasures was mentioned together as 'Three Treasures.' 'Three Treasures' was first raised as an issue about king Taejo's pro-Silla policy. However, it was Silla that showed a leading appearance over 'Three Treasures.' Silla reclaimed the 'Three Treasures' in the 5th ruling year of king Gyungmyeong, through which the king attempted to enhance the status of Silla in its external relations. In addition, the 'Three Treasures' seem to have had the utility in the

relationships with the Later Three Kingdoms of Korea at that time.

However, in so far as each of the Three Treasures in Silla came into existence during the early-to-middle period, it's necessary to examine for what need the 'Three Treasures' were demanded during the later period of Silla. Accordingly, this study took a look at the correlation between each of the 'Three Treasures' and the latter period of Silla. There remains no record about the Jangyukjonsang of Hwangryongsa Temple at present, so there might be the further need to look at it more concretely from the relationship with Hwangryongsa Temple. The 9-story wooden stupa at Hwangryongsa Temple became an object of interest in various ways after the early-to-middle period because its symbolic meaning was flexible. The case of Cheonsaokdae is a little different from the two treasures mentioned above. This study was able to discover the fact that the Cheonsaokdae exposed a royal-authority-strengthening character during the ruling period of king Jinpyeong rather than the appearance of a state-protecting treasure, which explains that such a character was demanded during the latter period of Silla.

Lastly, this study took a look at the meaning of king Taejo of Goryeo-Wanggeon's taking over Cheonsaokdae from king Gyeongsun of Silla. At this point, this study tried to have an eye on the fact king Gyeongsun offered Cheonsaokdae to Wanggeon as a token of a surrender only after the Later Three Kingdoms of Korea were unified, other than presenting Cheonsaokdae to Wanggeon concurrently with king Gyeongsun's self-imposed surrender to Wanggeon. Goryeo, after its unification of the Later Three Kingdoms, got to have the meaning as the Unified Dynasty taking over Silla,

and subsequently, king Taejo of Goryeo seems to have been in need of the 'Three Treasures' including Cheonsaokdae.

Key words: Three Treasures, king Gyeongmyeong of Silla, king Taejo-Wanggeon of Goryeo, Jangyukjonsang at Hwangryongsa Temple, 9-story wooden stupa at Hwangryongsa Temple, Cheonsaokdae

논문 투고일 : 2011. 11. 15 심사 완료일 : 2011. 11. 30 게재 확정일 : 2011. 12. 20